

- 주요 뉴스: 미국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물가성장률 전망 고려 시 과도한 수준
 - 전세계 상반기 해외투자, 전년동기비 78% 증가. 국가 간 양극화는 심화
 - 미국 9월 산업생산, 공급 차질 등으로 전월비 1.3% 감소하며 예상치(0.2%) 하회
 - 중국 3/4분기 성장률, 4.9% 기록하며 1년 만에 최저 수준. 전력난 등이 원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과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보험[+0.03%], 금리 상승[+3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 전망과 기술주 강세 등이 견인
 유로 Stoxx600 지수는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가능성과 9월 산업생산 부진 등의 상반된 요인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1%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인상 기대 등이 반영 수익률곡선은 플레트닝 지속
 독일은 영란은행의 물가상승에 대한 때파적 대응 가능성 등으로 2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86.8원, -1.7원) 0.1% 하락, 한국 CDS 보험

		10/18일	10/15일	전일대비			10/18일	10/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486.5	4,471.4	0.34%	국채 금리 10y	미국	1.60%	1.57%	3bp
	유럽	467.04	469.39	-0.50%		독일	-0.15%	-0.17%	2bp
	중국	3,568.1	3,572.4	-0.12%	CDS 5y	한국	20bp	20bp	0bp
	일본	29,025	29,069	-0.15%		중국	49bp	49bp	0bp
	한국	3,006.7	3,015.1	-0.28%	위험 지표	EMBI+	-	371	-
환율	달러지수	93.96	93.94	0.03%		VIX	16.31	16.30	0.06%
	유로화	1.1610	1.1601	0.08%		WTI유	82.44	82.28	0.19%
	엔화	114.32	114.22	-0.09%	원자재	구리	471.4	473.0	-0.33%
	위안화	6.4298	6.4356	0.09%		금	1,764.9	1,767.6	-0.16%
	원화	1,187.6	1,182.4	-0.4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물가성장을 전망 고려 시 과도한 수준

- 최근 JP모건 설문조사에서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43%를 나타내는 등 관련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 하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크며, 이는 코로나 19 영향이 감소하면서 결국 정상화될 전망
- 정부는 일부 항목의 24시간 가동을 유도하는 등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강화. 또한 Invesco의 Martin Flangan도 미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 MKM Partners의 Michael Darda는 경제성장 정체는 장기간 지속된다면 연준이 이를 방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Guggenheim의 Scott Miner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최근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매입 기회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전세계 상반기 해외투자, 전년동기비 78% 증가. 국가 간 양극화는 심화

- UN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해외투자는 8520억달러로 전년동기비 3730억달러 확대. 이번 결과는 코로나 19 이후 주요 선진국의 강력한 경기회복 등에 기인. 다만 선진국의 증가율이 88%인데 반해 저소득 국가는 9%에 불과

■ 미국 9월 산업생산, 공급 차질 등으로 전월비 1.3% 감소하며 예상치(0.2%) 하회

- 연준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전월(0.1%) 대비로도 감소. 제조업 부문의 0.7%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특히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부진

■ 미국 재무부, 경제 제재는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필요 시 타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 다만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

■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 코로나 19 이후 ECB 통화정책은 반드시 유연할 필요

- 비스코 총재는 필요 시 자산매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 ECB는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

■ 골드만 삭스와 JP모건, 영란은행은 11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

- 이들 투자은행은 영란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 이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골드만 삭스는 0.1%인 기준금리가 11월과 내년 5월에 각각 0.25%와 0.75%까지 상승하고, 내년 말에는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 3/4분기 성장률, 4.9% 기록하며 1년 만에 최저 수준. 전력난 등이 원인

- 국가통계국, 이번 결과는 전분기(7.9%) 및 예상치(5.2%) 모두 하회. 전력 공급 부족, 부동산 부문 우려 심화, 공급 차질 지속 등이 주요 원인. Oxford Economics의 Louis Kuijs는 향후 당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응 강화를 전망
- 9월 산업생산도 전년동월비 3.1% 증가에 그쳐 전월(5.3%) 및 예상치(4.5%)를 하회. ING의 Iris Pang은 경기둔화를 유발하는 부정적 요인의 대부분은 당국의 규제강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기조는 2022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

■ OPEC+, 일부 산유국은 9월 감산 완화 목표 달성에 실패

- 회원국들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일일 40만배럴의 증산을 약속했지만,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등은 투자부족과 시설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증산 요구가 있지만,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 강조

■ 인도 중앙은행, 경제회복 지속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

- 선부른 통화긴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여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 또한 공급 차질과 노동 수급 개선 등을 위해서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1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전월비): 80, 8월(76), 예상치(75)
- 중국 9월 소매매출(전년동월비): 4.4%, 8월(2.5%), 예상치(3.3%)

■ 주요 경제 이벤트(10/19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연준 보우만 및 월러 이사, ECB 레인 이사 강연
- 미국 9월 주택착공, 건설허가, 유로존 8월 건설지출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큰 성장 동력에 의존 - WSI

(China's Economy Rests on Three Shaky Legs)

- 중국 경제는 전력난, 부동산 관련 과도한 부채, 공급망 혼란 등의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둔화. 경기대책이 뚜렷하지 않아 향후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 제품 중심의 수출도 선진국의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소지
- 소비는 높은 수준의 저축을 고려 시 성장을 견인할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동산 시장 리스크는 여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성장 동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

■ 신흥국의 경제적 위험, 고물가와 공급망 혼란 등으로 심화 - Financial Times

(Developing economies risk falling off the convergence process)

-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미국 및 중국의 성장 둔화, 공급망 혼란 등은 신흥국 경제 회복의 장애 요인. 이는 높은 수입비용으로 인한 식량부족,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인한 산업생산 저해, 선진국 긴축 선회로 인한 자본유출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
- 아울러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은 상황. 이에 백신접종을 동반하여 성장 정책을 강화하고, 내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가 요구
- 선진국은 신흥국 리스크가 이민 증가, 세계 금융 및 지정학적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투자자들은 신흥국에 대한 정밀한 신용분석, 유동성 축소를 감안한 가격 책정, 부채상환 리스크 등을 고려할 필요

■ 미국 국채 수익률곡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플래트닝 지속 - 블룸버그

(Treasury Curve Flattens as Inflation Risk Stokes Hike Bets)

■ 영란은행, 인플레이션 우려 대처를 위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Bank of England is in a tight spot)

■ 중국의 성장 둔화, 각국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 수립에 걸림돌 - 블룸버그

(China's Slowdown Pricks the Inflation Narrativ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